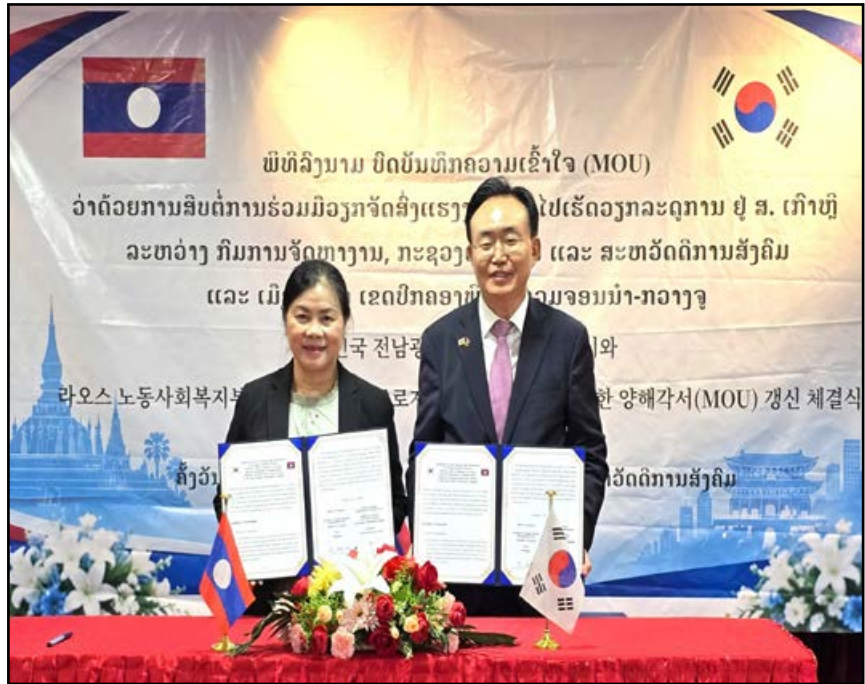


나주시, 라오스 계절근로 협력 확대...농촌 인력난 해소 나선다

모집 지역 확대·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윤병태 나주시장과 라오스 고용국장이 계절근로자 협약 갱신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농번기 인력 수요에 대응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모집 지역을 확대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및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하고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12월 라오스와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다.

이번 협약 갱신을 통해 기존 3개

지역이던 계절근로자 모집 범위를 5개 지역으로 확대해 우수한 농업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모집 지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별 영농 시기와 인력 수요에 맞춰 필요한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농촌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360명이던 도입 인원은 2026년 1100여 명까지 늘었으며 계절근로자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농가들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7년에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공공기관 유치 대응체계 강화

화순전남대병원, AI 의무기록 자동화 구축

담양군(군수 박종원)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치전략을 구체화하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군은 기획예산실장을 총괄로 하는 공공기관 유치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정부의 이전 정책과 대상기관 동향을 분석하고 관계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유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유치전략은 담양의 인문학과 생태자원을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사문화를 비롯한 인문학 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연구 분야와 대나무·죽·농산물·관방제립 등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환경·생태 분야를 중심으로 입지 적합성과 연계 가능성을 살펴본다. /강종연 기자

화순전남대병원은 의료진의 기록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성인식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의무기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사가 음성으로 진료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임상문서 작성을 돕고 기존 전자 의무기록(EMR) 입력까지 지원한다. 간호사용 시스템도 도입해 간호기록 작성과 요약, 환자 정보 입력 등을 지원하며 반복 업무를 줄이도록 했다.

병원은 이를 통해 진료·간호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의료진이 환자와의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태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생태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보건소 광장내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내 혈관 숫자 알기, 건강수명 늘리기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10월 21일 보건소내 광장에서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인식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방접종 기간 및 장날을 맞아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과 시장 이용객 등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

상담 홍보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군민을 대상으로 ▲혈압·혈당 무료 측정 ▲측정 결과에 따른 맞춤형 개별 건강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안내 및 홍보물 배부 등이 추진되었고, 특히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전문적인 건강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번 홍보 활동은 장날을 활용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건강정보를 생활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계속 기울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평소 생활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건강 확인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기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건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정보를 널리 알리고, 주민 누구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장성, 2030년 바이오가스 생산...친환경 에너지 확보

맑은물관리사업소 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유기성 폐기물 활용

장성군이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 분뇨, 음식물 폐기물, 하수 찌꺼기 등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군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해 약 1만 2900㎡ 규모의 맑은물관리사업소 잔여 부지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건립한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하루에 가축 분뇨 95톤, 분뇨 25톤, 음식물 폐기물 15톤 등 총 145톤 분량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 있다. 생산된 가스는 열병합발전 등에 활용된다.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 필수적인 가축 분뇨 처리는 기존 시설을 사용하기로 해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2024년부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추진에 나선 장성군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시행 등 필요한 절차를



김한중 장성군수가 박종원 담양군수에게 현안사업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장성군 제공

를 꾸준히 밟아왔다. 2030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칠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9월에는 김한중 군수와 군 공무원들이 국회 및 관계 부처를 찾아 국비 반영을 건의한 끝에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 군 최초 바이오가스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토양 오염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수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